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정치학 연구하는 안 교수를 만나 한국 청년이 겪는 정치적 분열의 본질과 대학 교육이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우리학교가 역대 최다 학문분야가 순위권에 진입한 가운데, 호텔관광 분야가 유일하게 50위권에 안착했다.

# 대학주보

## 양캠 보궐선거 마무리, 서울캠 총학 노크 당선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캠 보궐선거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국제캠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서울캠 개표 결과 ▲총학생회 노크 ▲미술대 GRIN ▲자율전공학부 LANDING ▲지리학과 길, 벗 선본이 당선됐다.

총학생회 선거는 50.7%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찬성 92.6%(6,509표)로 [KnockH] 선본의 엄규민(경영학 2020) 정후보와 허예담(자율전공학 2023) 부후보가 당선됐다.

단선으로 진행돼 투표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에 성공했다. 해당 보궐선거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됐다. 하지만, 총학생회칙 제12장 73조 4항에 의거, 투표율이 정회원 수의 과반수 미만일 시에는 연장투표를 48시간 이내로 실시할 수 있다. 이에,

지난 28일 오후 6시까지 연장 투표가 진행됐다.

미술대학 학생회 선거는 55.41%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찬성 83.54%(137표)로 [GRIN] 선본의 김용준(미술학 2021) 정후보와 이예신(미술학 2023) 부후보가 당선됐다.

자율전공학부 학생회 선거는 54.85%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찬성 81.92%(204표)로 [LANDING] 선본의 이세희(글로벌리더 2024) 정후보와 이예솔(글로벌리더 2024) 부후보가 당선됐다.

한편, 학과 단위 보궐선거만 추가로 진행된 국제캠은 ▲식품생명공학과 [새로] ▲유전생명공학과 [gene心]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모아] ▲스마트팜과학과 [에코] ▲스페인어학과 [Pista] ▲프랑스어학과 [DORÉ] ▲태권도학과 [키움] ▲스포츠의학과 [SU:M] ▲스포츠지도학과 [SSAP] 선본이 당선됐다.

### 서울캠

선거구	선본명	후보자
총학생회	KnockH(노크)	정후보 엄규민(경영학 2020), 부후보 허예담(자율전공학 2023)
미술대학	GRIN	정후보 김용준(미술학 2021), 부후보 이예신(미술학 2021)
자율전공학부	LANDING(랜딩)	정후보 이세희(자율전공학 2024), 부후보 이예솔(자율전공학 2024)
지리학과	길, 벗	정후보 이주영(지리학 2022), 양유나(지리학 2024)

### 국제캠

선거구	선본명	후보자
식품생명공학과	새로	정후보 한유진(식품생명공학 2023), 부후보 이문화(식품생명공학 2024)
유전생명공학과	gene心	정후보 김준기(유전생명공학 2021), 부후보 김주연(유전생명공학 2024)
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과	모아	정후보 나이빈(융합바이오·신소재공학 2022), 부후보 박서연(한방생명공학 2024)
스마트팜과학과	에코	정후보 정재우(스마트팜과학 2022)
스페인어학과	Pista	정후보 이호선(스페인어학 2022), 부후보 양윤근(스페인어학 2024)
프랑스어학과	DORÉ	정후보 진채우(프랑스어학 2023), 부후보 전수빈(프랑스어학 2023)
태권도학과	키움	정후보 이준표(태권도학 2021), 부후보 김형인(태권도학 2020)
스포츠의학과	S:UM	정후보 김호정(스포츠의학 2023), 부후보 이다현(스포츠의학 2023)
스포츠지도학과	SSAP	정후보 이태인(스포츠지도학 2021), 부후보 강전훈(스포츠지도학 2021)

## 자유전공학부, 회칙 상 중운위 참여 불가 “신설 학부 정착 위해 회칙 개정 필요”

권도연 기자 hudy94@khu.ac.kr

【국제】 자유전공학부 신설 후 학부 학생회가 출범했지만, 회칙상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위원 구성 자격에 저촉돼 중운위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자유전공학부 학생회는 총학과 적극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학생회칙 제51조 1항은 중운위 위원 구성 자격에 ‘선거와 선거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와 원칙에 의해서 선출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자유전공학부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자체적으로 학부 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총학생회칙

상 신입생은 피선거권이 없는데, 자유전공학부는 신설 학부인 관계로 신입생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칙 제187조에 따르면 2학기 이상 등록해야만 단과대 및 학과 학생회에 출마할 수 있다.

그렇기에 자유전공학부 선거 전 과정은 ‘학생 총투표’가 아닌 학부내 자체 회칙으로 진행됐다. 자유전공학부는 지난 12일 학부 총회를 열어 자체 학생회칙을 제정·의결한 바 있다. 당시 총회엔 학부 신입생 약 90%가 참석했다. 학생회칙 제정과 더불어 학생회비 금액 및 활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학생회칙은 총회 당일 참석한 재학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후 이를 근거로 자체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절차를 마쳤다. 선거 인정 여부는 다른 단과대와 같은 기준인 전체 유권자의 과반 투표율이다. 그렇게 마련한 회칙으로 자유전공학부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자체적으로 학부 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61.3%의 투표율에 찬성 99.32%(146표)로 이준석(자유전공학 2025) 정후보와 조서윤(자유전공학 2025) 부후보의 ‘Do, Re(도레)’ 선본이 뽑혔다.

국제캠 박병준(국제학 2017) 총학생회장은 “중운위에는 신설 학과 등 비상한 상황에 대한 참여 조항이 없다”며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의 중운위 참석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학생 총투표를 통해 적법하게 당선된 후보자가 아니면 예외를 적

용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자유전공학부 조 부회장은 “240명 인원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운위 의결권은 없더라도 논의 과정을 참관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중운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위원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총학생회칙 제41조 2항에 따르면 ‘단위학생회가 학생회 체계를 정상화할 의지와 대책이 있으며, 구성원의 이의가 없는 경우 중운위원 1/2 이상의 인준을 거쳐 확운위원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총학생회장은 “해당 조항에 따라 중운위에서 확운위원 인정 여

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이 위의 조항에 따라 확운위원으로 인정될 경우, 학생회장으로 공식 인준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다만 신입생들로 학생회가 구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자유전공학부 배재형 학부장은 “학생회 운영 경험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학생회와의 정기적 미팅을 통해 운영 방식에 대한 안내와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필요시 타 단과대 학생회와의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총학 측과 회칙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전공학부의 학부 특성을 감안해 총학생회 측에서 저희와 함께 회칙 개정을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며 “신설 자유전공학부의 정착을 위해서는 회칙 개정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자유전공학부 1기 학생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기반을 탄탄히 마련해 차기 학생회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 종합



임 학생회장(오른쪽)은 “우리의 목소리가 학교에 반영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하시인 기자)

##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일하겠다”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 서울캠 총학 당선자 임규민 정후보, 허예담 부후보

#2025학년도 서울캠 총학 보궐 선거에서 'KnockH'(노크) 선거운동본부(선부) 임규민(경영학 2020) 정후보와 허예담(자율전공학부 2023) 부후보가 당선됐다. 임 정후보 당선자와 허 부후보 당선자의 당선 소감 및 계획을 들어봤다.

#### Q. 당선 소감은?

우선, 투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다. 학생분들과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기에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진정성 있는 소통,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세로 변화의 시작을 열어갈 것이다.

#### Q. 유권자가 노크 선부의 어떤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생각하는가?

선거 기간 내내 학생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뒀다.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학생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하는 데 집중했다.

#### Q. 핵심 공약과 가장 먼저 이행하고 싶은 공약은 무엇인가?

재정 관련 공약이다.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다. 특히 자율운영위원회 정례화 공약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 되어야 하므로, 추진 과정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금 인상분 사용에 대한 논의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기에, 재정 사용 계획을 우선 논의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 Q. 당선 이후 재학생은 어떤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우리의 목소리가 학교에 반영되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 과정에서 강조했던 소통 창구의 활성화와 학생 의견을 빠르게 반영할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정식 총학이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비대위 체제의 구조적 한계로 학생 사회의 활동 범위가 제한됐다. 하지만 이제 학생회가 구성된 만큼, 학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공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학사, 복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준비한 공약을 속도감 있게 실현할 예정이다.

#### Q. 보궐선거로 인해 임기가 상대적으로 짧는데, 우려하는 지점이 있는가?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만큼 학생 자치에 대한 대학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상대적으로 짧은 임기 안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 Q. 필수 교양 전면 절대평가 시행 공약, 첫 단계는 무엇인가?

‘찾아가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소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후마, 후마 대학생위원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연석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양캠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모인 의견을 대학 본부에 공식적으로 건의드릴 계획이다.

#### Q. 총학생회 소통 창구 전면 재정비, 구축 방안은?

현재 폐쇄된 총학 홈페이지를 재정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많은 학생이 문의하는 총학생회 SNS에 대해서는 답변 메뉴얼을 구축해 신속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총학생회’ 부스를 분기별로 운영해 학생들과 마주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 Q. 2차 투표 연장 끝에 당선됐는데, 수도권 대학 20개 중 8곳의 총학이 비대위 체제다. 학생 자치 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학생 자치 존립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찾아가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소

통 관련 공약을 실현해 학생과 직접 대면할 것이다. 학생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 활성화가 절실하다. 학생 관심과 참여는 학생 자치 존립의 핵심이다. 단순한 대의기구로서의 총학이 아닌,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Q. 총학생회로서 학교-학생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예정인가?

학생의 목소리를 학교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교의 정책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끝까지 살필 것이다. 대학 본부 정책 이행 과정에 학생 의견이 활발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을 잇는 굳건한 통로가 되고 싶다.

#### Q.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마디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다. 학생, 학교, 그리고 경희 구성원 모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학생회가 되겠다.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만큼 공약 하나하나가 실현돼 가는 과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QS 학문분야별 평가, 32개 순위권 들어 '최다' 호텔관광 42위 '최고'...전체 순위는 하락 추이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지난 12일 발표된 '2025 QS 세계 대학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우리학교가 55개 학문분야 중 32개 학문분야가 순위권(500위 내)에 안착하며 역대 최다 순위권에 진입했다. 이 중 호텔관광대학은 유일하게 50 위권 안에 들며 세계 42위를 차지했다.

2025 QS 세계대학 학문분야별 평가는 세계 174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 평판도 ▲산업계 평판도 ▲논문당 피인용 ▲h-index ▲국제 공동연구 지수를 지표로 순위를 정한다. h-index 지표는 연구자의 연구 생산성과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다.

학문분야에 따라 지표별 평가 비중이 다르다. 연구를 중시하는 학문일 경우 논문당 피인용 지수, h-index, 국제 공동연구 지수 지표의 평가 비중이 크다. 반면, 평판도를 중시하는 학문일 경우 학계 평판도 지표와 산업계 평판도 지표의 평가 비중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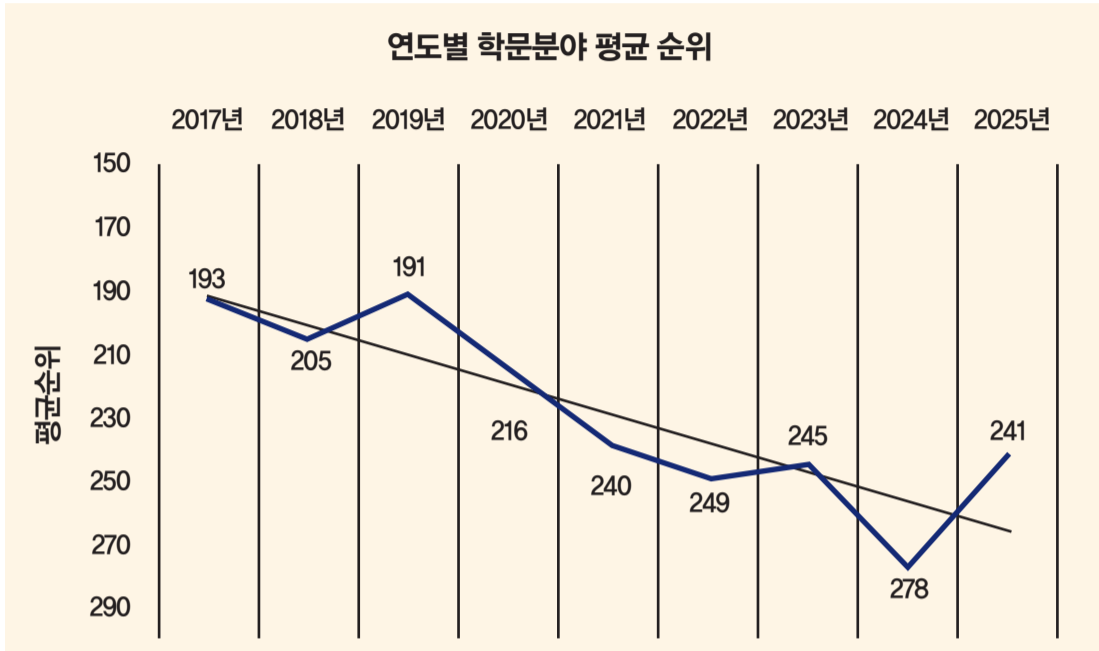
순위권 32개 학문분야 중 총 28개의 학문분야가 전년 대비 순위가 상승했다. 순위권에 진입한 학문분야는 50위권에 ▲호텔관광, 51~100 위권에 ▲언어학 ▲석유화학 ▲치의학, 101~150위권에 ▲현대언어 ▲간호학 ▲국제개발 ▲정책·행정학 ▲스포츠관련학 ▲농·임학이 올랐다.

### 순위권 대거 신규 진입 공학계열 약진

순위권에 신규진입한 학문 분야는 ▲석유화학 ▲치의학 ▲정책·행정학 ▲미디어학 ▲토목·구조공학 ▲교육학이다. 2013년, 2014년에 순위권에 진입했던 미디어학 제외 위 5개 학문 분야는 최초로 순위권에 들었다.

5개 학문 분야가 신규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로 학술진흥팀은 평판도 설문 홍보 강화를 꼽았다. 학술진흥팀은 "해당 분야들은 연구성과가 우수했으나, 상대적으로 평판도가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며 "해당 학문 분야의 학계, 산업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평판도 설문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학계 평판도 상승으로 공학



순위	학문 분야
1~100	호텔관광(▲), 언어학(▲), 석유화학(▲), 치의학(▲)
101~200	현대언어(-), 간호학(-), 국제개발(▲), 정책·행정학(▲), 스포츠관련학(▲), 농·임학(▲), 영어영문학(-), 건축학(▲), 지리학(▲), 경영학(▲), 약학(▲)
201~300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화학(▲), 화학공학(▲), 재료과학(▲), 기계·항공공학(▲), 의학(▲), 물리·천문학(▲), 수학(▲)
301~400	회계·재무학(▲), 생물학(▲)
401~450	환경과학(▲), 교육학(▲)

(▲): 전년 대비 순위권이 상승한 학문분야  
(-): 전년과 순위권이 동일한 학문분야

계열이 다수 순위권에 포진했다. 학술진흥팀은 "글로벌 연구 협력이 질 높은 연구성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계평판도 제고를 위해선 글로벌 연구 협력이 다수 이뤄져야 한다. 우리학교 교수진의 연구분야와 역량을 넘어서 세계 석학들과 연구하며 평판도를 높이고 연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학계 평판도 지표 점수가 전년 대비 12.8점 상승해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른 경제학 분야는 우리학교의 지속적인 교수 채용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주영(경제학) 학과장은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모셔온 교수님들의 해외 네트워크 활동과 연구 실적이 학계 평판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 다만 산업계 평판도 지표에선 약세

우리학교의 학계 평판도 지표 점수는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상승한

반면, 산업계 평판도 지표 점수는 하락했다. 산업계 평판도를 평가 지표로 가지는 34개 학문분야 중 25개 학문분야에서 산업계 평판도 점수가 하락했다.

평판도 100% 비중으로 순위를 산정하는 음악 학문분야의 경우 학계 평판도가 6.9점 상승했지만 산업계 평판도가 1.4점 하락하며 순위권에 들지 못했다.

음대 송기후 행정실장은 "공연활동, 콩쿠르대회에서 교수진과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평판도를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동문화재단, 의정부문화재단 등과 MOU를 맺었다"며 "앞으로 학생들의 무대 경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호텔관광 분야 세계 42위 과감한 혁신과 연구가 기여

세계 42위를 차지한 호텔관광은 우리학교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강점 분야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두 번을 제외하고 모두 50위권에 올랐다. 올해 50위권 내에 위치한 것은 호텔관광 분야가 유일하다.

호텔관광대학 스마트관광원은 BK21사업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스마트 산업과 hospitality관광학을 결합한 연구를 진행한다. 박상원(스마트관광원) 교수는 AI와 빅데이터를 결합해 제주도의 전기차 충전소를 적절히 배치하는 연구를 수행했고, '경희 Fellow' 우수 연구 부문 교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 교수는 "호텔관광대학은 계속해서 혁신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학문분야를 관광에 접목시키는 것이 그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새로움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호텔관광 학문분야의 순위를 높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호텔관광대학 정라나 부학장은 호텔관광대학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는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한다. 정 부학장은 "융복합 인재의 수요에

따라 편제를 개편했다"며 "시대가 바뀔 때 따라 호텔관광대학은 계속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호텔관광대학은 2023학년도에 편제를 개편해 호텔경영학과, 컨벤션경영학과, 외식경영학과를 Hospitality 경영학과로 통합했다.

구철모(글로벌hospitality·관광학) 학과장은 높은 순위 비결로 호텔관광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꼽았다. 글로벌hospitality·관광학과는 전체 영어 강의를 진행 중이다. 호텔관광대학의 재학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은 22.85%로, 우리학교 전체 재학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13.66%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구 학과장은 "국제화 역량을 중요 가치로 두고 영어 강의를 진행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많이 들어왔다"며 "졸업생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며 우리학교의 평판 또한 제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 학과장은 "자체적으로 글로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트렌드에 맞춰 교육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호텔관광대학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체 학문분야 평균 순위 하락 '새로 추가된 학문 분야 때문'

한편, 역대 최다 순위권에 진입했음에도 전체 학문 분야 순위 평균은 낮아졌다. 우리신문이 분석한 결과, 9개년 동안 평균 순위는 하락세를 그린다. 2017년은 193위, 2021년 216위, 올해 241위로, 9개년 동안 48순위가 하락한 셈이다.

학술진흥팀은 이에 대해 "평가 대상교와 대상 학문분야 수가 2017년 대비 증가해 순위가 낮아졌다"며 "우리대학의 중점 연구 분야가 아닌 학문분야가 추가된 영향으로 순위가 낮아지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대학의 연구 경쟁력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학술진흥팀은 QS 세계대학 학문분야별 평가 순위 제고를 위해 학문분야별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융복합 국제 공동 연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융합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우주과학, 바이오헬스, 양자과학, 첨단 신소재, AI, 인류문명 등 첨단 융합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종합

# 문과대 2·3층 리모델링 강의실 출입문 교체, 화장실도 개선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서울】 방학 동안 진행됐던 문과대 내 공사가 완료됐다. 화장실과 계단 리모델링, 강의실과 복도 내 시설을 교체했다. 공사 범위가 일부에 한정된 점에 대해서는 학교 측은 예산상 제약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사는 노후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건물 3층에서 주로 진행됐다. 여단을 때 소음이 심했던 강의실 철제문은 전부 불투명 유리로 교체됐다. 변색이 심했던 강의실 내 벽도 새롭게 페인트칠하거나 구조물을 덧대는 방식으로 보수됐다. 천장 LED도 교체됐다.

3층 복도 벽과 문틀, 바닥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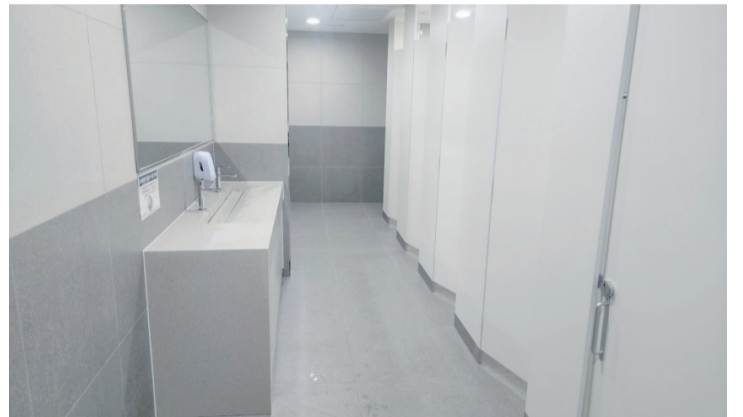
됐다. 계단은 기존 돌계단에서 플라스틱 소재로 교체됐고 점자 블록이 추가됐다. 2층은 일부 석면을 철거하고 조명을 LED로 교체했다. 총무관리처 관리팀 정종화 담당은 “3층의 경우 공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공사 후 건물을 사용한 김혜인(사학 2022) 씨는 “많이 낡았던 3층이 리모델링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번 리모델링은 강의실과 복도의 경우 2, 3층에서만 이뤄져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준(사학 2021) 씨는 “4층에도 강의실들이 있는데 여기도 개선이 함께 됐다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리팀은 예산 제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리팀은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어진 예산으로 진행해서 그렇다”며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 밝혔다. 이어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과대는 1961년 준공돼 건물 노후화로 여러 문제가 발생해 왔다. 지난해엔 화장실 역류 문제로 이용이 제한되는 일도 있었다. 이후 문과대는 리모델링을 통해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관리팀은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1층을 제일 먼저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됐던 화장실은 배관부터 정화조까지 모두 들어내고 새것으로 교체해 역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덧붙였다.



3층 강의실 문 교체와 강의실 벽 도색 등이 이뤄졌다. (위) 문과대 전층 화장실을 리모델링했다. (아래) (사진=추찬호 기자)

# 필드하키장 인조잔디 교체 테니스 코트도 개선 계획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국제】 공대 앞 체육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 21일 시작돼 당분간 주변 통행이 제한된다. 공사는 5월 15일까지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필드하키장 인조잔디와 테니스장 코트가 교체된다. 또 필드하키장 부속건물 내

바닥 타일, 냉·난방기, 출입문, 주변 펜스도 전부 교체한다.

공사 기간 안전을 위해 통행이 일부 제한된다. 공대 지하 주차장 연결계단 3개 중 테니스장 좌측 2개가 폐쇄되며, 농구장 우측 1개소만 개방된다. 체육시설 주변엔 안전 펜스가 설치된다. 농구장 또한 안전상 이유로 사용 불가하다. 관리팀 강희석 과장은 “공사 과정에서 장비 이

동 등에서 안전 사고가 날 수 있어 농구장 또한 사용 금지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체육시설 개선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 4월 열린 소통 회의에서 체육대학 측은 “공대 인근 체육시설이 타 대학에 비해 열악하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테니스 중앙동아리 ‘러비스’ 김동하 회장(건축공학 2020)은



공대 지하 주차장 연결계단 3개 중 테니스장 좌측 2개가 폐쇄되며, 농구장 우측 1개소만 개방된다. (사진=원희재 기자)

“기존 테니스장은 노후된 하드 코트로, 균열이 심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공대 체육대회에 참가한 최근원(원자력공학 2024) 씨 역시 “하키장 바닥이 갈라져 있어 체육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당초 공사는 지난 2월 중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겨울철 기상으로 인한 균열 우려로 일정이 연기됐다. 행·재정부총장실 정민섭 실장은 “겨울철 공사 시 동파로 인해 발생하는 균열 손상을 고려해 일정이 연기됐다”고 말했다.



대학주보 @khunews\_jubo



KHUNews\_JUBO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메라로 QR 스캔 → 채널 팔로우



# “학생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 2024 경희 Fellow 우수 교육-① 생체의공학과 변경민 교수

# 경희는 교육·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교원을 '경희 Fellow'로 선정한다. 우리신문은 2024 Fellow 교수 중 학생과 밀접한 '교육' 우수 부문 교원 3명 중 2명(변경민, 주부석 교수)을 만나본다. 첫 번째 순서로 변경민(생체의공학) 교수를 만나기 위해 전자정보대학관을 찾았다.

전정대 건물 내 한 강의실. 수업이 끝났음에도 강의실이 시끌벅적하다. 칠판에 빼곡하게 적힌 판서 앞에 학생들이 일렬로 서서 교수와 대화를 나눈다. 교수는 질문에 하나하나씩 정성껏 답변한다. 변 교수가 맡은 전정대 전공과목 '응용전자회로' 수업에서 매년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변 교수는 ▲BK21사업 융합학과 신규 교육과정 개발 ▲의공학 교과서 집필 등의 성과가 인정돼 2024 경희 Fellow에 선정됐다.

특히 변 교수는 지난해 여름, 의공학 전공 서적 '의공학개론' 집필에 참여해 바이오공학 분야 집필을 맡았다. 이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의공학 교과서다. 이 전까지 생체의공학 전공 서적 중 한글로 된 책이 없었다. 학생들은 외국 서적 중 일부를 발췌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변 교수는 “우리말로 된 서적을 통해 전공 과정 학습을 어려워

할 학부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서적은 이번 달 출간됐다.

변 교수는 단순히 한글화에만 힘쓰기보다,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설명'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학부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론뿐 아니라 생체의공학 기술이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지 예시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이러한 변 교수의 철학은 수업 때도 마찬가지로였다. 이론보다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갖가지 예시가 중심이다. 그 예시는 학생에서 나온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관심 있는 생체의공학 분야에 대한 짧은 보고서를 받는데, 이는 다음 수업의 재료가 된다. 변 교수는 “학생이 제안한 내용 중 인공 눈물 캡슐의 미세 플라스틱 등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들이 나온다”며 “미래 연구 방향에도 귀감이 된다”고 말한다.

수업 때 PPT나 영상 자료보다 판서를 고집하는 것도 변 교수의 특징이다. 자칫 옛날 방식으로 느껴질 수 있어도 학생 반응은 좋다. 집중도도 높아지고 교수와 학생 간 교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강생 이진수(생체의공학 2021) 씨는 “판서 수업을 통해 내가 몰랐던 세세한 부분까지 알게 되고, 수업 집중도도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 나은 강의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방향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변 교수는 최우수 교원으로 선정된 데에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생체의공학을 가르치는 변 교수는 학부 시절 전기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이후 더욱 관심 있는 분야로의 도전을 위해 생체의공학 박사과정을 밟았다. 이후 고도난정 환자의 정력을 회복시키는 벤처 회사에서는 납땜 작업을 하며 현장 경험을 쌓기도 했다. 이처럼 변 교수는 학생들에게도 끝없는 도전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20대는 무엇이든 도전하고 경험하면서 보내야 하는 소중한 시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고민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 학생회관 4층 천장 일부 내려앉음 대학, 지지대 부재 원인으로 파악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서울】 지난 26일 학생회관 4층 일부 천장이 가라앉은 사고가 발생했다. 천장을 고정하는 전산 볼트 부재가 원인이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405호와 407호로, 천장이 주변과 비교해 눈에 띄게 내려앉아 있었다. 문제 발생 후 현장을 점검한 관리팀은 천장과 마감재를 고정하는 전산 볼트 등 지지대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학생회관 천장은 콘크리트 아래에 천장 데크를 마감재로 덧댄

구조다. 콘크리트와 데크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 공간을 지지할 구조물이 없어 하중을 견디지 못하게 됐고, 데크가 가라앉은 것이다.

관리팀 김태우 과장은 “예전에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전산 볼트를 끊어버린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리팀은 철사를 이용해 천장을 임시로 고정한 상태다. 관리팀 한덕영 팀장은 “일단 철사로 고정해 놓았지만, 추후 점검으로 지지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중앙동아리는 동아리방 출입 자제 통보를 내렸다. 405호 동아

리방을 사용하는 오케스트라 동아리 'MDOP' 이규현(무역학 2024) 회장은 “샤를 전부터 천장 이상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난 26일 천장이 많이 가라앉은 것을 확인하고 학교와 총동아리연합회 측에 제보했다”고 말했다.

서에 중앙동아리 '서도회'는 학생회관 출입 자제 및 정기모임 취소를 공지하기도 했다.


서도회 최민준(철학 2022) 회장은 “정기모임 취소와 건물 출입금지 조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결정”이라며 “빠르면 오는 1일경,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은 인명을 구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선도적인 인도주의 기관으로, 긴급 상황에서 식량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영양을 개선하고 회복력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유엔세계식량계획(WFP) 한국사무소

### PR 및 마케팅 인턴 모집 공고



#### 모집내용

- 직책 : Intern - PR and Marketing
- 소속부서 : CAM, WFP Korea Office
- 근무지 : Seoul, Republic of Korea
- 활동기간 : 3월 말 근무 시작 (최소 6개월 근무)

#### 주요업무

※ 커뮤니케이션 담당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아래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텍스트, 사진, 영상, 오디오 등 콘텐츠 제작 지원
- Adobe 디자인 툴(Indesign, Photoshop, Premiere 등) 활용
- WFP 온라인 채널(Facebook, 네이버 블로그, Instagram 등) 관리 지원
- 콘텐츠 한영/영한 번역 지원
-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 사진 촬영 및 정리 지원
- 뉴스레터, 잡지 기사, 기타 작성 자료 초안 작성 지원
- WFP 관련 온라인 오프라인 뉴스 기사 검색 및 정리
- 인플루언서 및 자원봉사자와의 소셜 참여 활동 기획 및 실행
- 기타 요청된 업무 지원

#### 지원방법

- 모집기간 : 2.27 (목) ~ 3.13 (목) 15:00 까지
- wfp.korea@wfp.org 에 영문CV, Cover letter 제출
- 추후 면접 일정은 지원서 마감 이후 안내 예정

#### 지원자격

- 우대사항 : 취창업스쿨(국제기구, NGO분야) 기 수강자 또는 수강 예정자
- 경희대 재학생 및 휴학생
- 18세 이상, 아래 전공을 공부했거나 공부 중인 자 정치학, 국제관계학, 국제개발협력, 개발경제학, 공공행정, 홍보,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또는 기타 관련 분야 (ODA 관련 전공 우대)
- 한국어 및 영어 작문 능력 우수자
- UN 공용어 중 제2외국어 가능자 우대
- 소셜 미디어 관리 경험 보유자
- MS Office 활용 가능자
- UN관련 기관 인턴 경험 또는 모금 경험자 우대
- 오프라인 캠페인 및 행사 기획 경험자 우대
- 사진 촬영, 그래픽 디자인, 영상 편집 중 하나 이상의 기술 보유자 우대



6 창간 70주년 특집 - 나는 주간교수다 ③

# 대학언론을 사랑한 13년, 학생과 부딪히고 공감하다

## “네 글을 써라”던 교수, 지금도 질문 멈추지 않는다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정관수(전자공학·국제캠 주간)

# 창간 70주년을 맞아 대학주보는 역대 주간 교수를 만나 그들이 겪은 대학과 사회의 현실, 덜 다듬어진 학생기자들을 어루만져온 그 시간을 들여보았다. 세 번째 순서로, 국제캠 신문방송국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한 정관수 전 주간의 이야기다.

“군부타도! 독재철폐! 정권타도!”

젊은 시위대의 합성이 하늘 높이 메아리쳤다. 1984년, 학생이 직접 뽑은 총학생회가 탄생하고 지하에서 이뤄지던 학생운동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서울캠 노천극장 근처에서 시작한 집회는 매일 같이 정문 앞까지 이어졌고, 대기하고 있던 전경은 최루탄을 퍼부었다. 정문부터 본관까지 줄지어 있던 벚꽃 나무가 최루가스를 머금은 탓에 며칠이 지나도록 교정에선 지독한 냄새가 빠질 줄을 몰랐다. 최루탄 냄새와 함께 벚꽃, 라일락, 아카시아의 향기가 뒤섞인 오묘한 현상이었다.

수원캠(현 국제캠)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시위가 서울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총학생회 주도로 학생운동은 존재했다. 33기 이철주(불어불문학 1983) 동문은 “학생들이 교문 밖까지 진출했는데, 전경이 진압해오자 당시 진입로 양쪽 발로 산개해서 투석전을 펼쳤다”며 “학생들이 근처에 있던 지름 60~80센티미터 하수도관을 굴리는 바람에 전경들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며 그곳의 최초 시위를 회상했다.

### 투사 기질 다분했던 기자들 일상적이었던 의견 충돌

그렇게 학생운동이 한창이던 1986년 3월, 키가 크고 말끔한 행색을 한 정관수(전자공학) 교수가 공대 5층 대학주보 편집실에 나타났다. 전공인 전자공학이 방송과 밀접한 연관이 있던 것이 주간을 맡은 배경이었다. 신문방송국 역사상 최초의 이공계열 출신 주간이었다.

하지만 대학주보 구성원은 문과 위주였기에, 다소 이질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다. 34기 마정미 동문(불



정 교수는 학생 기자들이 사회를 읽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려 노력했다.

(사진=이지수 기자)

어불문학 1985)은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입은 와이셔츠는 하루 이상 입지 않는 멋지고 까탈스러운 분이었고, 매우 보수적이었다”며 첫 만남을 떠올렸다.

신문방송국 일원으로 처음 떠난 방중 세미나. 4시간 동안 기자들과 대작해야 했던 정 교수는 대학주보의 야만적인 술 문화에 황당함을 감출 길이 없었다. “새로운 교수가 얼마나 술을 먹는가 한번 보자”, “저놈들이 날 싫어하는구나.” 서로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었다.

정 교수는 당시 학생 기자들이 학교 신문을 사회 신문으로 사용한다고 느꼈다. 주된 고민거리였다. “왜 학교의 얼굴인 대학주보에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너희 생각에서 학생에게 주입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너희 생각을 강조하고 싶으면 신문이 아니라 유인물을 만들어서 학생에게 나누어주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기자들은 물러서긴커녕 “학교 신문은 학생 등록금으로 제작되는 만큼 학생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팽팽히 맞서곤 했다. 37기 정연옥(영어영문학 1988) 동문은 “교수님은 젊은 학생 기자의 진취적인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학생기자와 토론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다. 오케이를 내주지 않는다며 원고를 던지고 나가버린 33기 임종성(경제학 1983) 동문을 붙잡고 정 교수가 말했다. “너희들 누울 자리 보고 발 뻗어. 너희들보다 똑똑한 사람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많아. 근데도 이견 못써” 37기 정 동문의 말처럼 정 교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앉은 자리에서 기자와 타협을 보는 스타일이었다.

### 깊어진 애정으로 국제 신방국 발전 이끌어

신문방송국에 쏟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전자공학과 교수로서의 사회 활동은 줄어야 했다. 주간이라는 무게감이 어깨를 짓누를 때도 있었다. 매주 토요일을 반납하고 조판하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다. 기자들 몰래 몇 번이나 사직서도 냈지만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번번이 수리되지 않았다. 신문방송국과 끈질기게 이어진 인연은 정 교수가 주간직을 내려놓은 1998년까지 무려 13년간 이어졌다. 그렇게 정 교수는 역대 주간 중 가장 긴 기간을 재임했다.

오랜 시간 함께 하며 정 교수는 기자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누구

보다 크게 가지게 됐고 학생도 이를 느낄 수 있었다. 34기 마 동문은 “기사 때문에 논쟁해도 그분이 밍거나 서운하지 않았다”며 “가족처럼 편안하고 의지하는 분이 됐다”고 말했다. 35기 박용집(임학 1986) 동문은 “학생과 자주 가던 막걸리집에서 프랑스 샹송 ‘My Way’를 통기타를 연주하며 처음 불러주셨던 날이 생각난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간간이 댕에 불러 집밥을 먹여주시는 기억이 있다”는 33기 이 동문은 정 교수가 내어준 귀한 50도 술을 먹고 처음 느껴본 그 찌르르함이 생생하다. 37기 정 동문은 “교수님은 미국 유학 중이던 대학의소리방송국 출신 제 여동생 안부를 물으며, 귀국할 때 ‘장미 나무 담배 파이프를 주문’하시던 솔직담백한 모습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국제캠 신문방송국이 지금의 외형을 갖추게 된 것이 정 교수 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 특유의 행정력을 발휘해 공대 5층에 있던 12.5평 남짓 편집실을 지금의 학생회관 건물로 이전하는 결단력을 보여줬다. 새로 옮긴 신문방송국 자리에 자료실과 행정실을 두었고, 자체 예산을 할당했으며 처음으로 정식 조교를 임명해 조직을 조직답게 꾸려갔다. 학교 측에 “서울캠과 똑같이 취급하라”며 목소리를 냈던

탓에 “공대 교수가 그곳에서 도대체 왜 그러냐”는 비아냥도 주위에 심심찮게 들려오던 참이었다.

### 사회를 읽는 눈을 키우도록 끊임없이 질문하던 주간

주간 시절 정 교수가 학생 기자에게 바랐던 점은 단 하나였다. 남의 생각이 아닌,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고 글을 쓰라는 것. 그래서 질문을 아끼지 않았다.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걸 말아야”, “이 글이 네 글이야? 남의 생각을 베끼는 건 낙서일 뿐이지 네 글이 아니야”,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B라고 바라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그는 자신이 아끼는 학생 기자들이 사회를 읽는 눈을 키울 수 있도록,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려 했다.

민주화가 이뤄진 지금, 정 교수에게 주간을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요새 기자들이랑 같든 더 심할 수도 있어. 지금 봐봐. 학교에서도 탄핵 반대 찬성 갈라져서 그러잖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우리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따져볼까?” 그의 눈은 여전히 시대를 읽고, 현실을 깊이 성찰하려는 열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창간 70주년 특집 - 나는 학생기자다 ③

# 88꿈나무의 도깨비 시절

김종범  
대학주보 37기 (국어국문학 1988)

1988년 3월. 신입생이었던 나는 교정에서 한 현수막을 보았다.

대학주보로 가라.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

모든 것이 있다고? 만물상인가?

그로부터 한 달 후, 운명인지 인연인지 모르지만 나는 대학주보 수습기자가 되어있었다.

호호호 귀여운 수습이 들어왔구나~

선배 기자

잘못 왔나? 무서~

도깨비 소굴로 불렸던 편집실 분위기는 엄했다.

대학주보 편집실이 있는 신문방송국

위계질서가 분명했고 뺑뺑이 같은 열차려도 있어서 같이 수습기자로 들어왔던 몇몇은 초반에 사퇴하기도 했다.

분수대 한바퀴 돌아서 선착순 3명!

군대도 아니고... 난 못해!

나도!

수습기자의 일주일은 다음과 같았다.

금 목 수 화 일

월요일 저녁에는 서울로 올라온 수원캠퍼스 기자들과 함께 편집회의를 하였고,

회의 내용은 이번호 평가와 다음호 준비

인원이 많아서 수습기자는 한 책상에 2명씩 앉기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원고 청탁 및 취합, 각 기자가 담당한 단과대학과 부처를 취재하였다.

8층 건물을 몇 번씩 걸어서 오르내리려니 죽겠다.

당시에 서울캠퍼스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음.

금요일에는 받은 원고의 제목을 뽑거나 분량을 조정하는 편집과, 취재한 기사를 수기로 작성했는데 밤을 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원고지에 손글씨로 기사 작성

밤샘때 주전자에 끓여먹는 라면맛 최고!

토요일에는 다 쓴 기사와 원고를 가지고 시내 조판실로 달려가 신문을 만들었다.

조판소

가방 속 좀 봅시다.

조판소 가는 길에 불심검문에 걸렸는데 기사 내용이 불온하다 하여 불잡혀 하룻밤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기도 했음.

조판의 경우 전통적인 활판인쇄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문선공이 원고 내용대로 금속 활자를 골라 뽑아 레이아웃에 맞게 배열하는 조판을 하고 가인쇄를 해서 주면,

문선공

금속 활자

기자들이 오탈자는 없는지 등의 교정을 보았고, 수차례 수정 후에 별 이상이 없으면 최종본을 인쇄에 넘기는 방식이었다.

오자 발견!

4면 오케이!

그러다가 몇 달 후에는 조판시스템이 컴퓨터를 이용한 CTS방식으로 바뀌었는데,

CTS  
Computerized Typesetting System  
전산사식조판시스템

문선/식자/교정/조판 전체가 100% 전산화 디지털화 된 것은 아니고, 컴퓨터로 입력하고 프린트한 기사와 이미지를 신문 크기의 대지에 일일이 잘라 붙이는 과도기적 방식이었다.

신문 대지 작업

기사가 넘치니까 거기는 떨어내 주세요.

이러한 신문 조판은 대부분 늦은 밤에야 끝났고, 그 후에는 당연히 뒷풀이 술자리로 이어져 한 주간의 수고를 마무리 했다.

고생을 많았다. 건배~

대학주보 문화 중에도 독특한 것으로 '아기 도깨비 걸음마'라는 행사가 있었다.

우쭈쭈~ 잘 한다.

적응기를 거친 수습기자들을 환영해주는 자리인데, 한참 윗 기수 선배님들도 축하를 위해 참석하여 선후배간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날이다.

올해는 많이 살아 남았네. 이번 도깨비 걸음마는 더 성대히 해주마~

수습 기자

...라고는 하지만, 소주를 가득 채운 냉면사발을 몇 순배씩 돌리고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음주를 강권 받는 매운맛 통과레이기도 했다.

5배수의 쿠키 물라? 선배가 한 잔 마실때 후배는 다섯잔 마셔야지!

잊을 수 없는 대학주보 활동으로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 중 진행된 세미나를 빼놓을 수 없다.

Seminar

여름에는 언론 현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선배님들이 찾아와 기사작성/편집 요령 등에 대한 특강을 해주시기도 했고,

오늘 주제는 '제목은 맛있게 뽑는 법'

OB선배들과 현역기자들이 함께 오대산 등정이나 지리산 종주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 지리산 맞아?

겨울에는 민박집을 잡아 합숙하며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차기 편집장과 면부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 라는 논의도 이때 이루어졌죠.

대학주보 겨울합숙

세미나 와중에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은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동기모임의 좋은 안줏거리가 되고 있다.

그때 네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단체기합 받았잖아.

내가 아니라니까!

돌이켜 보면 인생의 가장 푸른 시절인 20대 대학생활, 그 중심에 있었던 대학주보에서 수 많은 희로애락을 겪었다.

희

근

락

애

그리고 그 경험과 추억이 이후 30년 사회생활의 밑거름이자 에너지가 되었던 것 같다.

경험 가족 여러분 모두 건승하세요.

대학주보

90% 고속충전중



8 종합

# “진로탐색부터 실전까지” 미인센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모저모

(미래인재센터)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1회: 높아진 코로나학번 취업 문턱  
2회: 우리학교 취업프로그램

# 지난 회차에서는 고용 한파와 코로나 이후 변화한 기업의 채용 구조를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취업 준비생이 우리학교 미래인재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본다.

미래인재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돕는다. 재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졸업생을 위한 취업 실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취창업스쿨과 기업 리크루팅, 기업 채용공고도 제공한다.

### 재학생 진로 탐색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미래인재센터에서는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 탐색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진로 탐색 프로그램은 학생에게 맞는 진로를 찾는 데에 중점을 둔다. 서울캠은 금융권, 외국계 등 다양한 계열의 취업특강과 '진로 및 직무탐색 e-DISC 검사', HR(인사), MD(상품 기획) 직무의 역량을 개발하는 'HR·MD 직무 양성 과정'을 운영 중이다.

HR·MD 과정은 미래인재센터 김

직무탐색 프로그램	서울캠	진로 및 직무탐색 e-DISC 검사 진로 및 직무탐색 e-DISC 검사 금융권 직무탐색 외국계 직무탐색 HR직무 양성 과정 MD 직무 양성 과정
	국제캠	전공탐색 및 기업가정신 세미나(1학년), 취·창업스쿨, 현직자 동문과 함께하는 'Career Design Festival', 취업박람회, 현직자직무부트캠프
역량강화 프로그램 (비교과 운영)	서울캠	자기소개서·면접 준비반(SIZE), 외국계·해외 취업 준비반(HATCH) 공기업·NCS 취업 준비반(ALIO) 서류·면접 종합 준비반(JSC) 졸업생 취업 집중반(Do IT AGAIN) 공채 면접 대비 실전반(OIP) 저학년 취업 이론 교육반(JEC) 졸업생 취업 종합반(Do It Now) 공기업·NCS 취업 준비반(SPEC)
	국제캠	사회진출 역량강화 교육(취업집중반, KEP), 글로벌 진출 교육(영문이력서, 면접), 대기업 직무적성검사 특강 및 모의고사, NCS 특강 및 모의고사
실전취업 프로그램	서울캠	공채대비 모의면접 컨설팅(MIC), 진로/취업 핵심 ALL 특강.
	국제캠	상/하반기 채용동향 특강(3·4학년), 자기소개서 특강 및 1:1 첨삭(3·4학년), 면접 특강 및 모의면접(3·4학년) 추천채용(4학년)

준완 중점교수가 담당한다. 다만 상시 운영은 아니다. HR은 1학기, MD는 2학기다. 미래인재센터는 “HR은 이번 연도부터 전문가를 모셔 9회차 특강으로 진행 예정이고, MD 역시 특강으로 진행하나 각 회차마다 강의자가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캠은 현직 멘토와 5주간의 실제 현업 과제를 수행한 후, 수료증을 발급하는 '현직자 직무부트캠프', MBTI 기질 이해를 통해 실전 취업을 돕는 'MBTI 전문 해석을 통한 전략적 취업 준비 Skill up'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1:1 집중상담반, 자기이해반, 실전취업반으로 나눠 자아 탐색을 돕는 '마이커리어스쿨'이 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주로 NCS, 자기소개서, 기업 분석 등 실제 취업에 필요한 부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주로 비교과 형태다. 자기소개서·면접 준비반 'SIZE', 외국계·해외 취업

준비반 'HATCH', 공기업·NCS 취업 준비반 'ALIO'와 'SPEC', 서류·면접 종합 준비반 'JSC', 졸업생 취업 집중반 'Do It AGAIN' 등을 운영 중이다. Do It AGAIN은 졸업생의 취업 자신감과 실제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자기분석, 직무탐색,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국제캠은 공기업과 대기업 공채 등 원하는 취업에 맞춤형으로 대비할 수 있는 'KEP 공채반', 'NCS 기반 공기업 대비반', '대기업 대비반'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분석', '통합 고사반', 'GSAT·10대기업·NCS 통합 특강' 등이 있다.

### 이제는 실전으로 취업 실전 프로그램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직무 적성검사 등을 돕기 위한 취업 실전

프로그램으로 서울캠은 'MIC', 진로·취업 핵심 ALL 특강을 진행 중이다. 국제캠은 '직무적성검사 특강 Go', '국제기구 진출 준비반', 'Just Do It', 'Jump up' 등을 운영한다.

서울캠 MIC는 공채를 대비해 모의면접 컨설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핵심 ALL 특강은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핵심 특강이다. 다만 23년 겨울까지 진행했던 고학년 직무부트캠프(현직자 멘토와 멘토링 진행)는 학생 수요와 만족도를 고려해 현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미래인재센터는 “학생 수요가 있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추후 다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캠 공통으로 운영하는 기업 채용설명회인 리쿠르팅과 기업 의뢰로 진행되는 추천 채용 역시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리쿠르팅은 주로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오프라인은 청운관과 도서관 1층 로비 혹은 피스홀에서 진행한다.

미래인재센터에서는 “기업별 자세한 리쿠르팅 일정은 미래인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장소가 학교일뿐 실무 현장과 다를 바 없어”

실무 현장 체험을 위한 '취창업스쿨' 강좌 또한 자유선택 교양 강의로 운영 중이다. 미래인재센터 주관으로 개설해 학기당 수강 가능 학점을 초과해 이수할 수 있으며, 성적은 P/N 방식으로 산출된다.

사회진출 지원,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 제공이 강좌의 목적이다. 이번 학기는 양캠에서 '금융권 취업전략', '진로탐색과경력개발' 등 총 28개 강좌가 개설됐다.

미래인재센터 김준완 교수는 이번 학기 '취·창업스쿨(GS리테일 MD전문가과정)' 강좌를 신설했다. 지난 2023년 7월, 김 교수는 삼양식품 실무자들과 협의를 거쳐 우리학교에 '삼양식품글로벌전문가과정' 강좌를 유치한 가운데, 올해는 GS리테일이 두 번째 기업으로 들어와 실무자들이 강좌에 참여한다.


지난 2023년 2학기 취창업스쿨의 삼양식품 과정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 3명이 최종 합격으로 입사했고, 지난해 2학기에 3명이 입사한 바 있다. 기업과 대학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학기 강좌를 진행 중인 GS리테일은 강좌는 성과에 따라 편의점에 학생 아이디어를 반영한 상품을 진열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장소가 학교일뿐, 실무 현장과 다를 바 없는 과정”이라며 “해당 강좌는 우리학교만 유일하게 운영 중이기에 타 대학에서 관련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덧붙였다.

## 2025학년도 육군 학군사관 후보생 전반기 모집 (3/4~4/27)

내 삶의 리더이자 특별한 미래를 꿈꾸는 이를 위한 앞서는 선택.

# ROTC



### 학군후보생 혜택

**경제적 혜택**  
후보생 선발시 일시불 지급  
**1,200만 원**  
단기복무 장려금

구분	훈련비	교보재비	학군생활 지원금
3학년	150 만 원	81 만 원	180 만 원
4학년	185 만 원	81 만 원	180 만 원

자기계발비 지원

기숙사 제공  
\*대학별 상이

각종 장학금 지원  
\*대학별 상이

### 특별한 경험

- 리더십 UP
- 해외연수 기회
- 국내·외 전지역 견학
- 군사훈련 (공수·사격 등)

### 임관 시 혜택

- 전공과 연계된 근무 기회  
\*외대, 포스콜(군에서 입학 가능)
- 장기복무자 자기계발 기회 제공
- 다양한 여가지원  
\*패밀리레스토랑, 영화관, 야쿠리리움 할인 등
- 군 복지시설 이용 혜택  
\*군병원, 휴양시설, PX 등
- 군속소 지원
- 소위 6.6% 중위 6%  
'24년 '25년 소위·중위 기본급 6%인상

구분	'24년	'25년
GP	월 최대 100시간 986,000원 (소위) 1,015,000원 (중위)	월 최대 200시간 약 2,000,000원 (소위) 약 2,100,000원 (중위)
GOP	월 최대 150시간 약 1,500,000원 (소위) 약 1,600,000원 (중위)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 *해당인 등 적용 시 추가 확대 추진 등



# 음대 이아경 학장, 데뷔 30주년 콘서트 성료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서울】 지난 25일 예술의전당에서 음악대학 이아경(성악) 학장 데뷔 30주년 콘서트 ‘마이웨이(My Way)’가 열렸다.

우리학교를 졸업한 이 학장은 1995년 25세의 나이에 국립오페라단 주역으로 데뷔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메조소프라노로 성장했다. 메조소프라노는 소프라노와 알토 사이의 음역을 가진 성악가다.

이 학장은 2003년 벨리니 성악 국제 콩쿠르에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후 5개의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성악가로 활동했다. 2010년 후학 양성을 위해 모교인 우리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부임했다.

이번 공연에는 김도석(성악 1982) 피아니스트가 함께했다. 우리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 동문은 유럽 각국의 음악회에서 수많은 성악



이 학장은 “같은 공간과 시간에 함께 나는 호흡과 울림의 감흥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진=이 학장 제공)

가와 공연을 해왔다. 이 학장과는 2018년 슈만 음반 발매 기념 콘서트 이후 7년 만에 호흡을 맞췄다. 이 학장은 지난 30년을 돌아보며 인생을 사계절로 표현하는 콘셉트로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 사계절별로 4곡씩, 프롤로그·에필로그 곡과 앙코르곡을 합해 총 19곡을 선보였다.

이 학장은 과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다. 프롤로그 ‘음악에(Andie Musik)’로 공연을 시작했다. 이

어 ‘봄’ 순서에서 ‘사랑스러운 나의 연인 (Caro mio be)’, ‘봄의 찬가 (Frühlingsglaube)’, ‘산들바람아, 불어라(Spirate pur, Spirate)’, ‘또 한 송이의 나의 모란’을 불렀다. ‘여름’에선 ‘하바네라(Habanera)’, ‘그대, 사랑하오(Ich liebe dich)’, ‘님이 오시는지’, ‘아침의 노래(Mattinata)’를 불렀다.

‘가을’ 순서가 시작되자 이 학장은 흰 드레스로 바뀌었고 큰 박수를

받으며 다시 관객 앞에 섰다. ‘오, 나의 사랑하는 그대(O del mio amato ben)’, ‘누군가 내 마음을 적시네’, ‘꿈(Sogno)’,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Mon cœur s'ouvre à ta voix)’ 순으로 공연이 이어졌다. 마지막 ‘겨울’ 순서는 ‘내게 안식을 주소서(Ridonami la calma)’, ‘눈’, ‘오, 소나무여...(O Tannenbaum)’, ‘날 잊지 말아요, 물망초(Non ti scordar di me)’ 순으로 마무리됐다. 곡이 끝날 때마다 성악가에게 보내는 찬사를 의미하는 ‘브라바!’가 객석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계절마다 한국 가곡이 빠지지 않은 점이 공연의 특징이었다. 이 학장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가곡에 대한 애정이 있다”며 “관객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곡씩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에필로그 곡 ‘나의 여정(My Way)’은 공연의 화룡점점이었다. 이 학장의 압도적인 성량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였다. ‘And did it my way’라는 가사를 부르는 장면은 마치 이 학장이 지난 커리어를 자랑스럽게 돌아보는 듯했다. 앵콜

곡으로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모든 산을 올라가보세요(Climb Every Mountain)’를 부르며 가장 큰 박수갈채 속에 콘서트를 마쳤다.

이 학장은 “같은 공간과 시간에 함께 나는 호흡과 울림의 감흥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지난 30년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관객들에게 ‘제가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공연이었다”고 덧붙였다.

현직 교수가 예술의전당에서 개인 콘서트를 여는 것은 흔치 않다. 이 학장의 제자들과 김진상 총장, 한균태 전 총장 등 우리학교 구성원도 객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학장은 “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독창회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영광이다. 우리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께서도 광장히 기뻐해주셨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학생들이 볼 때 우리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앞으로 멋진 음악 인생을 펼칠 수 있겠다는 희망을 주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꿈을 말했다.

# 대학농구 개막, 첫 경기 1점 차 석패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국제】 ‘2025 KUSF 대학농구 U-리그’가 지난 17일 개막했다. 우리학교가 참가하는 남자부는 12개 대학이 최정상 자리를 위해 경쟁한다.

우리학교는 지난 21일, 선승관에서 열린 시즌 첫 경기에서 한양대에 57-58로 패했다.

전반까지는 23-29로 밀렸지만 3쿼터 중반 이상현(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의 연속 5득점과 박창희(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의 3점슛으로 내리 8점을 올렸고, 46-44로 경기를 뒤집었다. 하지만 4쿼터, 25초가 남은 상황에 한 점 차로 이기고 있던 중 상대에게 실점하며 역전을 허용했다. 경기의 마지막이었던 11.8초의 공격 기회에서 득점에 실패하며 결국 패배했다.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과 39.6%의 높은 3점슛 성공률을 기록했던 배현식(스포츠지도학 2024) 선수는 이번 경기에도 15득점으로, 양 팀 선수를 통틀어 가장 많이 득점했다.

농구부 김현국 감독은 “첫 경기



우리학교는 지난 21일, 선승관에서 열린 시즌 첫 경기에서 한양대에 57-58로 패했다. (사진=농구부 제공)

결과가 아쉬웠지만 장기 레이스기 때문에 이번 패배를 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소감을 남겼다. 주장 이상현 선수는 “첫 시험에서 잘 풀린 점과 그렇지 않은 점이 명확히 보였기 때문에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학교는 12개 대학 중

6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플레이오프 1라운드 건국대를 상대로 76-77로 패배하며 8강에서 탈락했다. 지난해에는 4학년 없는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전력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4학년 선수 전원이 선수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작년 전력에 5명의 유망한 신입생들이 힘을 더한다. 신입생 중 3명의 선수가 대학 무대 첫 경기부터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 감독은 “선수단 템스가 많이 두꺼워졌다”며 “신입생도 충분히 경기에서 나올 기량이고, 큰 활약을 하려는 것보다는 1학년답게 각자 맡은 역할을 다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장을 맡는다. 지난해 농구부의 4학년 선수 모두가 운동을 그만둔 여파로, 이례적으로 2년 동안 주장을 맡게 됐다. 우 선수는 “1년 동안의 주장 경험이 있어서 팀을 이끄는 역할을 작년보다 수월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 경기에서는 아직 우리의 기량이 절반도 안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에 호흡을 맞췄던 선수들이 그대로 있고, 부족했던 점을 메워줄 신입생들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U-리그 4강까지 진출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김 감독은 “올해는 U-리그, MBC배 전국대회 모두 결승까지 가는 게 목표고, 수비가 끈끈한 우리학교 본연의 농구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 선수는 “학기 초에 많이 바쁜 텐데, 농구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선승관으로 응원하러 와주시니까 힘이 난다”며 “앞으로 있을 경기들도 계속 응원하러 와주시면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응원을 부탁했다.



10 사람

# 극단 부추기는 정치... '공론장' 대학 역할 커져야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안병진(미래문명원) 명예교수**

# 뜨거웠던 전국의 찬반 시위가 최근 대학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정치적 양극화도 격화되고 있다. 우리신문은 한국보다 앞서 극단적 세력이 등장한 미국 정치학을 연구하는 미래문명원 안병진(정치학) 명예교수를 만나 한국 청년이 겪는 정치적 분열의 본질과 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들어봤다.

**Q1. 현재 한국 청년 정치 성향은 어떠한가?**

전반적으로 기성세대보다 진보적이다. 특히 20대 여성은 차별과 혐오 문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더불어민주당에도 부정적일 정도로 진보적이다. 시사IN 설문조사 결과 남성도 60%가 탄핵을 찬성하며 진보성향을 보인다.

한편, 동일 설문조사 결과 20대 남성 응답자의 30%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페미니즘에 반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기존의 '보수'와 전혀 다르다. 서부지검 폭동 가담자를 보수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더 극단적인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러한 세력은 초법적 수단,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 보수주의자와 극우주의자는 분명히 나누어 판단해야 할 존재다.

**Q2. 극단화는 어떠한 연유로 발생했는가?**

정치 지도자의 시그널이 극단적 세력을 드러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성별 간 균열, 남성의 사회적 박탈감,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등 복합적 요소가 보수화를 일으켰다면, 이번 서부지검 폭동은 극단적 지도자의 시그널로 촉발된 극단화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숙명여대 홍성수 교수에 따르면 혐오 범죄가 생기는 것엔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청년들의 극단적 태도는 정치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칭 '백골단'으로 불리는 극단적 청년 조직을 국회로 불러들인 김민전 의원이 그 예다.

**Q3. 한국 극단적 세력의 폭력 행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계엄 후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시



안 교수는 "계엄을 비롯해 현 세태는 매우 어지럽지만, 청년에게 정치적 각성과 경험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고 강조했다.

(사진=대학주보 DB)

작일 뿐이다. 극단적 세력은 앞으로 상당 기간 존재할 것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네오파시즘적 문제다. 유럽, 미국의 극단적 세력 폭력 행동은 오랜 기간, 현재까지도 존재한다. 인종, 계급, 학벌, 종교, 성별, 젠더, 국적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세계는 나뉘고 혐오한다. 한국은 특히 계급과 성별 균열이 굉장히 뿌리 깊다.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 폭력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Q4. 균열을 해소할 방법은 무엇인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20대 남성들은 자신의 지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성은 군대를 안 가고, 취업 전 2년여의 공백은 크기 때문이다. 이 공백으로 인해 나오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지위의 상실감을 덜 느낄 수 있는 정책보다 선제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지위 자체를 없앨 정책이다.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졸과 대졸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사회적으로 존중감을 받고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구조가 필요하다.

**Q5. 정치에 있어 대학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서로 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교육 구조가 필요하다. 한국은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만 중시한다. 대학에 가서도 취직만을 중시한다. 학생을 대기업에 취직시키는 것만이 교육의 성과는 아니다.

학교가 다양한 정치사상의 공론장이 돼야 한다. 학교에서 쉽 없이 토론해야 비로소 서로 간의 소통을 하지 않았을 때 느낀 선입견이 깨질 수 있다. 토론 시 '단호한 비판 그러나 역지사지'가 중요할 것이다.

**Q6. 학교가 건전한 공론장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정치를 주제로 토론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정치적 양극화 극복을 위해 학교는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그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자들이 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인 지금엔 이 토론이 어렵다.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할 민주시민교육이 부재하고 있다.

**Q7. 소통이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가?**

소통을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소통은 강력한 힘이 있다. 미국의 한 보수당 정치인의 딸이 레즈비언이다. 사랑하는 딸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정치인이 동성애자를 혐오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서로 적대감을 가지는 문화적 이슈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유튜브를 1시간 이상씩 시청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극단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있다.

**Q8. 계엄 사태로 인한 청년 정치 참여도 상승에 대한 의견은?**

극단적 세력이 등장하고 서로 분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청년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 일이다. 이전 세대와 다르게 지금의 2030 세대의 정치적 경험이 부재했다. 계엄을 비롯해 현 세태는 매우 어지럽지만, 청년에게 정치적 각성과 경험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청년은 비판적 사고와 역지사지를 통해 언젠가 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리더십을 갖춰 바른 지도자로 성장하길 바란다.

“정치적 양극화 극복을 위해 학교는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그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



## 사설

## 외면당하는 학생자치, 존재 이유부터 되짚어야

서울캠 총학생회 보궐선거가 2차 연장 투표 끝에 가까스로 성사됐다. 점점 낮아지는 학생 자치를 향한 관심이 우리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도권 주요 19개 대학 중 총 8개 대학이 현재 총학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무려 42%에 달하는 수치다. 대학 사회의 학생 자치가 점차 기반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총학 선거는 개표조차 어려워졌고, 입후보자 부재로 인한 보궐선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은 갈수록 형식적이며, 정책적인 모습보다는 콘서트 책상과 운동장 잔디 교체 등 대학 총학생회 공약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학생 자치의 신뢰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총학 보궐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한 학생에게 투표를 왜 안

했냐고 물은 적이 있다. 그는 “비대위나 총학 체제나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말했다. 이 짧은 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 과연 학생 대표기구 존재 이유를 제대로 증명하고 있는가? 학생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학생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총학은 학생 사회의 대표로서 학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역할이어야 한다. 그러다보니 이번 선거에 출마한 선본의 공약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교양 과목 절대평가 시행’, ‘통합 앱 개선’, ‘대외활동 가점 확보’ 등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정작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드러나지 않았다.

우리신문과 VOU가 공동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역시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순 없었다. 공약 실현 가

능성에 “유관 부서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같은 실현이 다소 어려워 보이는 공약이더라도 총학은 두려움을 느껴선 안된다”는 식의 다소 원론적인 답변만 털어놓았다. ‘융합’에 대한 키워드 질문에 ‘기업 연계형 대외활동 가점 확보’, ‘창업 연계형 커리큘럼’ 등 다소 논점과 벗어 나는 대답이 주를 이루기도 했다.

단선이 주는 긴장감의 감소 때문인지 몰라도, 형식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구체적이지 않은 공약을 나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실질적 변화를 줄 수 있는가다. 출마한 선본에 대한 신뢰는 아니나 다를까, 몇 해 전부터 낮은 투표율로 인한 투표 기간 연장의 반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숙명여대 총학 비대위 김희원 위원장은 “일부 총학이 실질적 성

과 없이 자기 목적적 운영을 하며 향후 본인의 정치적 커리어 발판으로 삼는 사례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학생 자치의 중심인 총학은 학생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책임감 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현실을 반영한 회칙 개정 또한 필요하다. 낮은 투표율로 반복되는 개표 연장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표에 필요한 투표율 기준 재검토라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

학생 자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관심과 참여, 신뢰와 책임,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력 위에서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총학 스스로가 본인들의 역할을 되짚고, 학생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때다. 학생이 외면하는 자치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 세시봉

## 리노베이션



이지수 기자  
ssu1404@khu.ac.kr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보고 그가 누구였는지 기억을 더듬은 적이 있다. 권력을 겨냥한 강골 검사,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발언이 퍼뜩 떠올랐다.

그렇게 3년이 흐른 겨울, 계엄을 보니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현 대통령제에 의문을 품게 됐다. 정치 경력이 전무했던 검사는, 전적으로 진영 논리에 의해 정치판에 초대됐다. 승자 독식, 권력 독점으로 대표되는 현 대통령제는 결국 지금의 사태를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번 계엄으로 미뤄 봤을 때, 현 대통령제를 향한 견제 기능은 막강한 대통령 권한에 비해 미약하다. 대통령이 모두 휘두르는 인사권이 대표적이다. 중앙 부처 장·차관과 고위직 공무원,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 등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을 주는 인사만 7천 명에 달한다. 선거에서 이긴 쪽은 5년간 거의 모든 보직을 가져간다. 임명을 정해놓고 하는 인사청문회는 볼 때마다 피로하기만 하다. 민생을 신경 쓰는 척하지만, 실상은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인 것이 우리나라 정당의 현실이다.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인사권 역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1987년부터 약 40년간 대통령제는 지속되었다. 변하지 않던 체제로 인해 조금씩 조금씩 끓어왔던 것이 결국 지난 12월에 터진 것이다.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씩씩하게도,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거야의 대표는 소극적이다. 2022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내세웠던 공약이 무색하게도 개헌에는 침묵하고 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해진 날씨를 보며 탄핵 심판 선고가 목전에 다가왔다는 것을 느낀다. 그만큼 개헌을 위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여러 방식으로 권한 분산을 꾀할 수 있지만, 이렇다 할 하나의 해법이나 대안은 아직 마땅치 않다. 눈앞에 다가온 기회가 권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회가 아닌, 그 권력으로 어떻게 하면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기회여야 한다. 정치적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보다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대해본다.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체계적인 학내 안전 시스템을 위해

## 안전불감증

하시연 기자

hse0622@khu.ac.kr



물리적 공간 안전은 학생의 일상과 학내 활동을 지탱하는 기본 전제다. 그런데 지난 27일 서울캠 학생회관 일부 천장이 내려앉은 사고가 발생했다.

원인은 천장을 지탱하는 지지대인 전산 볼트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인명 피해가 없어 다행이지만, 학생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했기에 사안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학교의 대응은 아쉬웠다. 본격적인 현장 점검은 우리신문이 학교 측에 발생 경위를 물은 직후에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점검에 나선 직원들이 천장 내부를 들여다보며 “지지대가 없네”라며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다. 총동아리연합회와 각 중앙동아리 대표자들은 앞서 학교 측에 상황을 제보했다고 밝혔지만, 관리팀은 요청 접수가

된 지 인지하지 못했다.

“요청이 너무 많이 쌓여 확인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의외의 답이다. 다수 학생이 위험을 감지하고 직접 목소리를 낸 상황에서조차 학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학내 안전 시스템에 대한 좀더 촘촘한 대처의 필요성이 드러난 지점이다.

비단 학생회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캠퍼스에는 지어진 지 수십 년이 넘는 건물들이 적지 않다. 그 천장 속 구조물들이 어떤 상태인지, 전산 볼트는 제대로 박혀 있는지, 지금 당장 무너질 위험은 없는지 학생은 알 길이 없다.

관리의 공백은 곧 위험으로 이어진다. 그 위험은 언제나 학생 곁에 도사리고 있다. 구조물은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릴 수 없다.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점검에 나서는 대응 방식이 반복된다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부상자가 나오지 않아 안도감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철저한 대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만평 학생들은 학내 공간에서 불안에 떨고 있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mailto: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



# 불면의 밤과 숙면의 기대 사이에서 봄



오태호  
(휴머니티스칼리지) 교수

## 긴 밤 지새우고

불면의 밤이 길어지고 있다. 2024년 12월부터 위험적이고 불법적인 비상 상황이 100일 넘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꽃들도 가지개를 피며 여기저기에서 '오늘의 봄'을 알리고 있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제대로 된 봄은 아직 멀리 있는지도 모른다. 거리에서 더 큰 파국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모이면서 사회대개혁의 목소리가 더 높고 깊고 멀리 퍼지고 있다. 하지만 극단적 언행과 폭력을 선동하는 기독교 세력의 강고한 방호벽은 두텁기만 해서 꿈쩍도 안 할 것처럼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 남태령의 풀잎마다 맺힌

2024년 12월 남태령에서의 '무박 2일'을 기억한다. 농촌 공동체를 상징하는 트랙터가 용산으로 향하던 길을 경찰버스가 가로막고 있었다. 그 소식이 전파를 탄 이후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응원봉이 빛을 내는 우리 시대의 약자 연대가 시작된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이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함께 밤을 지새운 뒤 투쟁의 공감대가 형성되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거짓말처럼 길이 열린다. 사실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지만 누군가에 의해 차단되었던 길이 중앙 정치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힘없는 약자들의 어깨동무로 다시 열린 셈이다.

## 진주보다 더 고운 '우주 전사'처럼

2025년 1월 한남동에서의 '키세스 전사'를 기억한다. 한겨울에 폭설이 내린 도로 한복판에서 하얀 은빛 담요를 방한복인 것마냥 온몸에 둘러싸고 앉아 밤새워 추위와 싸운 사람들의 흑독한 마음에 공감한다. 흑한의 눈보라 속에서도 훼손당한 민주주의의 회복과 그로테스크한 내란 사태의 정상화를 위해 누구보다도 뜨겁게 타올랐을 '은박 담요 연대'의 신념을 존중한다. 그날의 영상 속에서 식민지 시기의 독립운동가들과 독재정권 시기의 민주화 투사들을 떠올릴 수 있었다. 망상적 폭력에 맞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새 날에 대한 신념 속에 그들은 '은박의 열기'를 발산하며 시대적 냉기를



오 교수는 "폭설이 내린 도로 한복판에서 은빛 담요를 방한복인 것마냥 온몸에 둘러싸고 앉아 밤새 추위와 싸운 사람들의 흑독한 마음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일러스트=박서연 기자)

이겨내고 있었던 셈이다.

## 사회대개혁을 향해

탄핵 선고가 이 상황의 끝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100여 일 동안 벌어진 과시적 언행과 폭력의 난무는 한국 사회의 미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계엄의 선포와 내란의 준동으로 파생된 탄핵 정국의 마무리는 선고 이후 사회대개혁의 신호탄이 되어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2016~17년의 촛불혁명 이후 기대했던 대한민국의 재구조화가 실패한 이후 더욱 강렬하고 절실해진 개혁 열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제 진짜 아래로부터의 개혁과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적 감수성을 확장하면서 공화정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 폭력과 망상의 언어도단을 넘어

우선 언어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라캉은 언어가 무의식의 조건이라고 말한 바 있고,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으로 규정한 바 있다. 지금 현재 폭력과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오염된 이단의 언어가 개인과 사회 공동체의 무의식에까지 침범하며 존재와 세계를 타락시키

고 민주주의의 기능을 폭력적으로 마비시키고 있다. 이제 정화된 언어로 정상성의 세계를 전복시키려는 극단의 의도를 소거해야 한다. 양극단이라는 착시 현상으로 이분법적 양비론을 통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광기적 언행의 현실 왜곡을 비판하고 새로이 '다시 만날 세계'의 평화공동체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 완연한 봄에

2025년의 3월은 잔인한 봄이 될 예정이다. 경상도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재난적 산불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산수유의 노란 자태가 '땡 빈 중심'을 선보이고 있으며 팝콘 같은 매화가 하얀 나비를 닮은 형상으로 봄을 선도하고 있다. 경희의 상징인 하얀 목련과 더불어 이제 곧 개나리와 진달래와 벚꽃 등이 앞을 다투며 만화방창(萬化方暢)한 봄의 유혹을 시작할 것이다. 캠퍼스의 봄은 그렇게 캠퍼스 바깥의 비상 상황과는 다르게 아름다운 계절의 자수를 놓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쯤에서 영화 <1987>의 장면들처럼 캠퍼스의 자유가 질식되었던 19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폭압적 상황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시절 그때의 봄은 그냥 저절

로 오는 것이 아니라 봄을 마주하려는 피땀 어린 노력과 끈질긴 행투 속에 가까스로 조금이나마 기어오르고야 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아침이슬의 영롱함을 닮은 사랑의 빛이 당도하길

달콤한 잠이 그림다. 잠이 보약이다. 숙면의 자유와 일상의 회복이 절실하다. 2025년 어느 따뜻한 봄날 아침이슬이 피어오르는 아련한 기운을 온몸으로 나른하게 체감하며, 그때 비로소 깨어난 듯한 꽃나무들과 초록의 새싹들 속에서 막걸리 한 잔에 추억과 사랑과 청춘을 마시며, 운동주와 이육사와 김수영을 음미해보고 싶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밤에도 왜 별이 바람에 스치울 수밖에 없는지, 지금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왜 뿌려야 하는지, 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지를 조금이나마 어렵풋하지만 곡진하게 알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봄은 그제야 느지막이 세월호의 아이들과 이태원의 청년들과 더불어 남태령을 넘어 은박지에 새긴 사랑과 함께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푸른 하늘을 수놓는 광야의 서시처럼 자유와 정의의 이름으로 빛과 함께 기어오를 것이다. 김민기의 아침이슬처럼.

“ 계엄의 선포와 내란의 준동으로 파생된 탄핵 정국의 마무리는 선고 이후 사회대개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